

태양광 광풍 전남 땅값 '들썩'

해남·고흥·무안 허가대기 폭증 신안 논 감정가 보다 7배 뛴돈 거래 농사·염전 포기하고 태양광 눈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전국 농어촌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태양광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지만 농사나 염전보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탈 원전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은 2164 GW/h로 전체 전력량의 5%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에 따라 규제완화 방침을 담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면서 태양광 설치를 억제했던 지방자치단체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는 그동안 경관을 해치고 고용창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태양광 등의 신규 설치를 극도로 제한했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정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에 따르면 전국 84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태양광 등의 확산을 막아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태양광 신청이 폭증하고 덩달아 땅값이 폭등했다.

무안군의 경우 지난 8월 주요 도로 1,000m, 10가구 이상 주택에서 500m 이내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설치를 제한했던 규제를 풀면서 한 달 만에 400여건이 접수됐다.

해남군은 허가 대기 건수가 2,000여건에 이르며, 고흥군 역시 1,000여건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다.

국내 대표적 간척지인 충남 서산 및 태안 천수만 간척지도 태양광 발전시설 최적지로 꼽히면서 땅값이 들썩고 있다.

태양광 발전업자 김모(49·광주)씨는 "최근 태양광을 짓기 위해 신안에 있는 논과 전복 새만금에 있는 간척지 등을 샀다"면서 "바닷가에 있는 신안

논 1만평을 감정가보다 7배나 주고 샀다"고 현지 땅값 시세를 전했다.

이처럼 농어촌 땅값이 폭등하면서 농사를 포기하거나 태양광 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무안군 한 마을은 올해 논농사를 포기하고 이곳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염전에서 나오는 소독보다 태양광 발전소득이 훨씬 많아서다.

이 마을 한 주민은 "마을 어른들을 조합원이나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골병드는 염전을 하는 것보다 태양광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태양광 발전업자 황모(50·전남)씨는 "천일염 가격이 폭락하면서 염전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면서 "얼마 전에 임대 계약을 마쳤다"고 말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늘어났다. 목포 달리도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 찬반을 놓고 10개월 동안 다투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태양광 반대와 허가요청 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산지나 농지의 난개발, 지나상속, 주민불편 등의 민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미에 기자



더 뚝뚝해진 '기가지니' 만나요

KT 홍보모델들이 KT스퀘어 기가지니 체험부스에서 기가지니 30만 가입자 돌파를 축하하고 기가지니의 새로운 서비스를 체험해보고 있다.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상승

한은 어음 동향, 지난달 0.24% 전국 부도율 3배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 및 지방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도금액도 크게 늘었다.

1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지난달 어음부도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만 제외, 금액기준)은 0.24%로 전월(0.07%)에 비해 0.17%p 상승했다. 이는 전국(0.09%) 어음부도율에 비해 3배 가량 높고, 지방평균(0.19%)과 비교해서 0.05%가 높은 수치다. 지역별론 광주가 0.38%p(0.02% → 0.40%) 상승했고 전남은 동일한(0.11% → 0.1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도금액(사업체 기준)은 48억 9,000만원으로 전월 13억 5,000만원보다 35억 4,000만원 증가했다.

업종별 부도금액은 제조업이 2억 9,000만원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31억원이 증가했다. 서비스업도 7억 3,000만원 늘었다. 지역별론 광주가 34억 6,000만원, 전남은 8,000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신규 부도업체(당좌 거래정지 업체)는 4곳으로 확인됐다. /고광민 기자

광주 근로자 상위 0.1% 연봉 2억4,255만원

평균 연봉 2,902만원...세금은 113만원

광주지역 근로자들 중 소득 상위 0.1%의 평균 연봉은 2억4,2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총급여 천원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광주지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902만원이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근로자 평균 연봉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전남은 3,201만원으로 6위였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

산(4,112만원)였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2,820만원)이었다.

광주 근로자 가운데 연봉이 높은 0.1%(374명)의 평균 연봉은 2억 4,255만원, 전남은 2억 3,055만원(472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소득 상위 20%의 전체소득 점유율은 46.3%로 하위 20% 소득의 12.1배에 달했다. 전남은 상위 20% 소득이 전체 근로자 소득의 50.9%를 차지했고 이는 하위 20% 소득 대비 15.4배로 광주보다 소득격차가 컸다. /서미에 기자

2015년 광주지역 근로소득자 37만4,000여명은 4,217억원을 납부해 1인당 평균 113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전남은 47만2,000여명의 근로자가 6,267억원의 세금을 내 근로자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납부했다.

윤 의원은 "시도별 소득의 격차도 크고, 지역 내 소득불평등도 높은 수준"이라며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미에 기자



생활용품 싸게 팔아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9일 지하 1층 행사장에서 25일까지 밀폐용기·빨래건조대·믹서기·다리미판 등 생활용품을 최대 75%까지 할인판매한다고 밝혔다.

창업기업 증권발행 상장 세무 설명회

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서광주세무서 공동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광주지원은 오는 24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크리에이티브 1센터에서 광주·전남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광주·전남 창업기업 대상 증권발행 상장 세무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거래소 및 서

광주세무서와 공동으로 '2017 광주기술통상기업'을 이용해 창업기업들에게 자금조달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개최, 유상 및 무상 증자 방법 등 유가증권 발행관련 실무, 기업공개 및 유가증권 상장실무, 그리고 기업이 알아야 할 세무기초

등의 내용으로 2시간에 걸쳐 이뤄진다. 광주·전남지역은 열악한 투자환경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며, 이런 설명회를 계기로 투자환경 개선 및 창업기업들의 자금 조달 다양화를 통한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은 창업기업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미에 기자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행복한 문화숲

광주만의 특별함이 문화가 되고
누구나 어디서나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행복한 문화숲 광주를 가꾸겠습니다.

10월 광주문화재단의 특별한 만남

<p>광주만의 축제</p> <p>무등산 저각 전통문화대전지 '2017무등물림' 10.7.(토)~29.(일) / 전통문화관 전통 관혼상제, 전국국악대전, 전통음식 공매·놀이체험, 판박술 힐링음료회 등</p> <p>무등산의 가을 '남도피마 관광문화제 가을마실' 10.21.(토)~22.(일) 오후 2시 / 광주호 호수생태원 졸다기, 무등산호랑이춤 풍년기원만마당, 버스킹공연, 맥거리장터 등</p> <p>오백년 누정종류의 휘둘러 '누정문화제' 10.28.(토)~29.(일) 오후 1시30분 / 광주호 호수생태원 송순 화방연 개연, 선비풍류체험, 풍류차사 시간 콘서트, 풍류달빛공연 등</p>	<p>일상이 곧 예술</p> <p>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라-네가 제일 예뻐' 10.21.(토) 오후 1시 /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신나게 보고 만들고 노는 56개 문화예술 체험·공연·전시 버스 90개 단체와 함께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 10.28.(토) 오전 11시 / 금남로 5-18민주광장 음악, 미술 등 이루어 예술인 1천명이 꾸미는 흥겨운 잔치마당 매주 토요일 거리예술 공연 '광주프린지페스티벌' 10.28.(토) 오후 4시 / 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흥겨운 관악기 연주, 큰 의상대 시범공연 등 관악페스티벌</p>
--	--

www.gjcf.or.kr | www.facebook.com/gjgjc | blog.naver.com/gjgjc |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화로 338번길 7 | TEL.062-670-7400 | FAX.062-670-7489